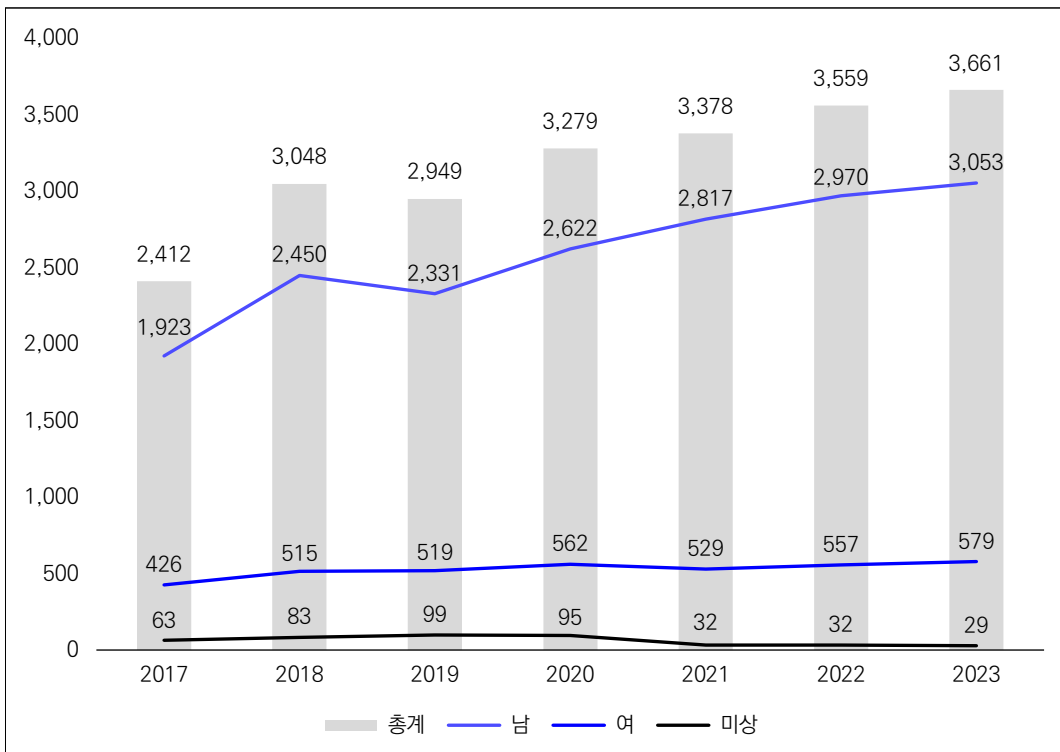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

-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크게 증가함.
 —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비단 일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함.¹⁾

[그림 1]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주: 미상 및 기타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임(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자료: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현황」, 각 연도.

- 1) 무연고 사망을 법률에서 고독사로 칭하고 있으며, 정의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함(고독사예방법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크겠지만²⁾ 사회 신뢰도 감소³⁾와 관련되는 고립감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무연고 사망은 주로 은퇴 후 남성에게 발생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 중 자살자 수 또한 50대에서 높음.
 - 무연고 사망은 50·60대와 같은 은퇴 후 남성에게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이는 은퇴 후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⁴⁾,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사료됨.
 - 무연고 사망자 중 자살자 또한 50대에서 주로 발생하였지만, 20대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부족한 일자리 경험으로 인한 소외감⁵⁾, 고용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높은 우울감 경험이 요인일 수 있음.
-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하였음.
 - 무연고 사망과 개연성이 높은 사회적 고립도(위기 상황에서 인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2023년 33.0%로 2019년(27.7%)보다 5.3%p 증가하였음.
 -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2023년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26.0%가,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는 20.5%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2)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17년 28.6%, 2018년 29.3%,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에서 믿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4.8%, 2018년 30.8%, 2019년 33.8%, 2020년 49.4%, 2021년 40.7%, 2022년 45.3%, 2023년 47.3%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임.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2024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연령은 2024년 51.2세였고, 주된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업, 폐업이 33.8%, 권고사직, 명예 퇴직, 정리해고 17.1%, 기타 15.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2%, 정년퇴직 14.7%,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어서 2.0%, 가족을 돌보기 위해 1.4%였음.

5)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3년 청년세대(19~29세)에서 직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였음. 청년들의 직장 경험 부재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전문적 역량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사회적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

〈표 1〉 무연고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와 비중

(단위 :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살 사망자 수							자살 사망 비중						
	463	567	576	541	571	495	516	19.2	18.6	19.5	16.5	16.9	13.9	14.1
19세 이하	1	1	1	0	2	1	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0.0
20대	32	29	29	28	30	43	25	59.3	54.7	53.7	59.6	56.6	71.7	59.5
30대	70	85	63	69	66	75	72	47.0	45.7	38.4	43.4	40.2	51.0	43.4
40대	116	120	156	122	137	125	129	26.7	25.5	30.0	25.7	26.0	23.8	25.7
50대	110	159	151	172	169	129	155	14.2	17.2	17.1	16.4	16.9	12.0	14.1
60대	81	95	110	104	105	94	95	16.3	12.7	15.7	11.3	10.7	8.5	8.3
70대	27	38	39	30	43	22	23	9.7	9.8	10.4	7.8	10.2	5.1	4.9
80대 이상	7	19	13	8	14	4	14	5.8	10.7	7.3	3.8	6.9	2.2	6.8
미상	19	21	14	8	5	2	3	18.6	19.8	20.6	24.2	18.5	10.0	9.1

자료 :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현황」, 각 연도

〈표 2〉 사회적 고립도(2017~2023년)

(단위 : %)

			2017	2019	2021	2023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합계	28.1	27.7	34.1	33.0
		19~29세	19.1	18.4	26.7	24.5
		30~39세	22.1	21.0	27.9	27.5
		40~49세	27.4	26.9	31.0	30.1
		50~59세	32.5	30.4	37.1	35.0
		60세 이상	35.8	36.6	41.6	40.7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합계	21.6	20.4	27.2	26.0
		19~29세	15.3	14.1	22.5	20.4
		30~39세	18.0	16.6	23.0	22.4
		40~49세	22.3	20.7	25.6	24.9
		50~59세	25.2	23.0	30.3	28.6
		60세 이상	25.2	24.9	31.1	29.7
	2)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합계	16.8	17.1	20.7	20.5
		19~29세	10.9	10.7	14.6	14.4
		30~39세	11.2	11.1	16.0	17.2
		40~49세	15.1	15.1	17.6	18.0
		50~59세	19.3	18.7	21.2	20.2
		60세 이상	24.4	25.5	28.4	26.9

주 : 사회적 고립도는 조사 대상 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향후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사건으로만 간주하기보다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 무연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견하고⁶⁾, 고위험군인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서비스인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⁷⁾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시에 사회적인 상호작용(표 3 참조) 또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KLI**

〈표 3〉 OECD 주요국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소요된 시간(Time spent in social interactions)⁸⁾

(단위 : 시간(Hours per week))

국가	시간	기준연도
일본	1.2	2021
호주	4.7	2006
한국	4.9	2014
미국	5.1	2018
영국	5.7	2014
스웨덴	6.1	2010
프랑스	6.2	2009
독일	7.0	2012

자료 : OECD, *How's Life? 2024: Community relationships*.

6) 지자체로는 대전시가 2023년 고독사 관련 자원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 고독사 인식 제고 교육,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따라 고독사가 2022년 141명에서 2023년 104명으로 감소하였음. 이후 2024년 550억 원 규모의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정 방문, 유선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고, 청년층에게는 마음 회복, 관계 회복, 일상 회복 서비스를, 중장년층에게는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대전광역시(2025. 2. 14.), 「고독사 없는 대전, 대전시 고독사 예방사업 본격화」,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7) 사회적 처방은 영국 국립보건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성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자원연계 실무자' 등 1차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비의료 서비스 '자산(asset)'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제공되는 지역사회 자원은 예술활동, 신체활동, 학습, 자원봉사, 친교 모임, 자조 모임, 사회 보장 혜택, 교육 기회, 부채 해결 탐색 지원 등임.

8)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일주일에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4.9시간으로 독일(7.0시간), 프랑스(6.2시간), 스웨덴(6.1시간)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했음.

〈표 4〉 지난 5년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수(2017~2023년)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전 체	전 체	2,412	3,048	2,949	3,279	3,378	3,559	3,661
	남	1,923	2,450	2,331	2,622	2,817	2,970	3,053
	여	426	515	519	562	529	557	579
	미상 및 기타	63	83	99	95	32	32	29
연령 별	19세 이하	계	1	1	1	0	2	0
		남	0	0	1	0	1	0
		여	1	1	0	1	0	0
		미상	0	0	0	0	0	0
	20대	계	54	53	54	47	53	42
		남	35	36	33	20	37	22
		여	18	16	18	26	16	20
		미상	1	1	3	1	0	0
	30대	계	149	186	164	159	164	166
		남	98	135	112	103	120	115
		여	49	48	50	54	44	51
		미상	2	3	2	2	0	0
	40대	계	435	470	520	475	526	502
		남	362	405	408	378	436	402
		여	63	52	96	86	88	98
		미상	10	13	16	11	2	2
	50대	계	776	922	885	1,047	1,001	1,077
		남	679	808	769	894	900	946
		여	71	97	92	124	91	123
		미상	26	17	24	29	10	4
	60대	계	497	746	702	924	981	1,110
		남	413	631	587	796	860	979
		여	74	87	92	104	114	128
		미상	10	28	23	24	7	3
	70대	계	278	387	376	384	421	433
		남	196	259	276	285	314	339
		여	77	116	89	88	104	91
		미상	5	12	11	11	3	3
	80대	계	120	177	179	210	203	186
		남	59	96	102	132	135	118
		여	60	78	70	73	67	68
		미상	1	3	7	5	1	0
	연령 미상	합계	102	106	68	33	27	20
								33

자료 :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현황」, 각 연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